

## 21세기 패션아이콘의 패션 스타일과 감성적 융합작용

박 송 애

용인송담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 Fashion Style and Sensibility Fusion Effect of Fashion Icons in the 21th Century

Song-Ae Park

Prof., Dep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2013. 6. 17. 접수; 2013. 7. 30. 수정; 2013. 8. 5. 채택)

#### Abstract

Fashion icons of 21st century are not only the fashion leaders that show fashion trend but also the typical fashion signs or symbols that show visually changes in sensibility tr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ramework of 21st century fashion by the public to recognize through these changes.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of various 21st century fashion ic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and the changes of revealed features and symbolic meanings were examined compared with them of 20th century.

The 24 celebrities which have been called as the bests of fashion icons since year 2000 were selected by searching the most popular search engines such as daum, yahoo and google, and 13 of them were picked as the highest in preference and awareness by surveying 50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And then their fashion styles, backgrounds, and influence on the public fashion were studied.

As a result, the 21st century fashion icons reflect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convergence and exaggeration and the sensitivities of fusion, collaboration, hybrid sensibility in art were powerful enough to create innovative styles destroying the era and the standard. Their styles have constantly created new looks. The exposed new individual sensitivities on media -fusion of two or more sensibility and coordination techniques without being tied to the existing anchorage system- were as influential as high fashion and led the imitation and reproduction by dazzling the public. As the media become more powerful, the influence of fashion icons interacted more closely with the public and has been evolved through the sensitivity of the reversal, cultural, economic, visual, or temporal fusions.

To sum up, it is shown that the outstanding fashion styles suggested by the leading fashion designers have approach to the public more closely by the fashion icons.

*Key Words:* Fashion Icon(패션아이콘), Fusion style(융합스타일), Sensibility fusion effect(감성적 융합작용)

#### I. 서론

패션은 사회적 변화와 그 의미를 같이하며,

상징적 스타일은 시대적 아이콘으로 존재하게 된다. 20세기 패션은 개방화 자유화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부흥, 예술적 감성, 기술적 발달, 대중의 욕구에 따라 극심한 변화와 유행을 형성하게 되었고, 의미 있는 사회문화적 아이콘을 탄생시켰다. 패션아이콘은 각 시대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고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며 패션산업의 상업적 방향과 구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각종 멀티미디어가 발달한 21세기 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의 한계가 없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강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시시각각 이슈화되는 이야깃거리들은 자주 거론되는 인물들의 특징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베스트(best) 혹은 워스트(worst) 패션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각종 정보 매체와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직선적이고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나름 대중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패션에 대한 견해를 강한 형용사를 사용하며 전파하고 있다. 그 결과 패션 아이콘은 패션산업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와 관련된 각종 문화 산업의 광고, 디자인, 브랜드 컨셉에도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유행보다 대중을 선도하는 파워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패션 아이콘은 사회적 표상이며(김영옥 외, 2008) 패션현상의 시대적 기호이다. “클라라보우 메이크업” “가르보 햇” “먼로 룩” “헵번 스타일” “트위기 메이크업” “제키 스타일” “포셋 헤어” “마돈나 룩”(김성윤, 2008) 등은 잊을 수 없는 시대의 상징 패션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특정 스타일은 물론이고, 시대적 트렌드와 취향,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는 기호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패션 뿐 아니라 문화와 생활의 중심으로 시대적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는 패션아이콘의 모습을 바꾼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패션 융합현상은 패션 아이콘의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21세기 패션 아이콘들은 단순한 패션트렌드를 앞서 표현하는 패션 리더가 아니라, 패션의 융합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시대의 감성변화를 패션에 반영한 대표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아이콘

을 통해 대중들이 인정하는 21세기 패션의 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점점 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21세기 패션아이콘의 발생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20세기와 비교하여 표면화된 특징과 상징적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 최고의 검색엔진 daum, yahoo, google을 통해 2000년 이후 패션아이콘이라 거론된 대상을 24명을 선별하였고,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총 24명의 패션아이콘 중 영향력 있는 패션아이콘 10명씩을 선정하도록 하여 과반수이상 선정된 즉,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13명의 패션아이콘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패션스타일과 배경,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중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패션의 감성 작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III. 이론적 배경

### 1. 패션아이콘의 역사

패션아이콘은 개인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요소와 대중들에 의해 형성된다(이은숙, 2010).

20세기 초반 대중들의 관심 속에 등장한 상징적 패션 아이콘은 여성해방과 이상적 여성 이미지를 보여주며 아르누보라는 예술적 성향을 곡선적 바디라인으로 그려낸 여배우 “카밀 클리포드”이다. 당시 그녀가 보여준 스타일에 의해 획일적인 S-자형 코르셋과 가슴라인이 여성들의 대표 스타일로 자리잡았음은 당연하다. 할리우드는 매혹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대량생산의 패션산업은 획일적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제시했다. 1920년대에는 클라라 보우와 루이즈 부룩스의 플래퍼 스타일이, 1930년대에는 그레타 가르보와 조안 클리포드의 슬림하고 지

적인 이미지로, 1940-50년대에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매혹적이고 글래머로스한 뉴룩스타일이 대표적으로 아이콘화 되었다.

20세기 중반기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패션표현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패션은 사회적으로 일탈과 반항, 젊은 청년들의 대담한 패션표현이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고, 몸이 너무 말라서 전혀 부유해보이지도 여성스럽지도 않은 트위기와 고급스럽고 지적인 퍼스트레이디 재클린 케네디가 상반된 기호의 패션아이콘으로 동시에 등장했다. 이 시기는 영문화와 기성문화가 강하게 대립되는 구조인데, 이는 위의 두 명의 패션 아이콘으로 상징화 되었다. 젊은 문화를 상징하는 제임스 딘과 말론 브란도,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등은 강한 영향력과 확산성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전파되었다. 비트, 모즈, 히피 등의 하위문화패션은 이들에 의해 부각되었고 강한 존재감을 표현하였다. 이런 중에도 샤넬, 지방시, 발렌시아가 등의 디자이너들은 소위 미래에 “명품”브랜드의 탄생에 일조하는 럭셔리 기성복을 보여주며 세기의 패션아이콘 오드리 헵번을 탄생시키고, 풍요롭고 보수적인 기성문화패션으로 대비되었다. 1970년대는 일탈과 파괴, 아이러니한 패션이 기존의 미의 질서를 무시하고 등장하였다. 대중음악은 이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하드락, 프로그래시브락, 글램락 등의 파괴적 성향의 거친 음악의 표현을 도왔다. 영국의 락밴드 퀸과 데이빗 보위와 함께 진패션의 아이콘이 된 파라포셋은 이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20세기 후반기는 고정관념을 깬 실험적 성향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에 대한 표현이 일탈적, 도발적으로 진보하며 새로운 형식의 의상이 등장했다. 베르사체와 비비안 웨스트우드, 장 폴 고티에는 일탈적 대중의 심리를 수용하여 하이패션에 핑크와 히피를 도입하고 1980년대 이후는 소재의 혁명과 함께 과감하고 도발적인 성적표현이 패션에 반영되어 하이테크 성향의 퓨처리즘과 아방가르드, 상상을 초월하는 그로테스크에 이르는 환타지한 컨셉들이 패션의 진보를 이루었다. 마이클잭슨, 마돈나는 가죽과 레이스, 넘치는 액세서리로 성을 초월하는 페미니즘과 페티시즘, 엔

드로지너스룩을 연출하며 이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하였고, 강력한 흑인문화인 힙합스타일과 함께 1990년대까지 강하게 상징된다.

이 후 기술의 진보와 함께 대중 감성과 패션문화의 혁신으로 시스루, 스트레치 등의 신소재가 패션을 급격히 변모시키고 컴퓨터,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빠르게 흡수된다. 이때 등장한 케이트 모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패션 아이콘 역시 그 이미지가 다양화 되며 21세기 대중 중심의 강력한 패션으로 자리 잡는다.

## 2. 패션 감성의 융합화

20세기는 정치, 경제, 기술, 문화의 잦은 변화와 발전 속에 패션의 시대적 변화 역시 유난히 심했던 시기이다. 다양한 패션스타일과 이에 따른 패션아이콘이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미디어와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스타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더욱더 새로운 스타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20세기 후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듀얼리즘, 아방가르드 컨셉의 등장과 함께 20세기를 넘어 21세기 뉴트랜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20세기의 표현주의적 혁신디자인 이외에 복고풍과 미래주의, 럭셔리와 빈티지, 캐주얼과 스포츠룩, 에스닉과 데카당스 등이 융합적 성향을 보이며 독특한 감성의 패션스타일들을 보여주었다.

21세기 정보의 혁명은 대중들의 지식혁명을 동반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념이나 영역들을 초월하여 융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능과 영역이 창출되고 파괴되며 성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모든 현상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미현, 2005). 다양한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감성과 결합하여 기기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융합의 의미는 “여럿이 녹아서 하나로 합침”이다. 이는 화학적 결합에 의해 완전한 하나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퓨전, 컨버전스, 콜레보레이션 등의 용어가 여러 각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패

〈표 1〉 융합과 관련된 각 용어의 의미와 특징

용어	의미/특징	의미	특징
하이브리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것	잡종 새 이미지 창출
퓨전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이 합쳐져 새로운 것이 됨	융합 융해
컨버전스		기술이나 성능의 융합	통합
크로스오버		다른 장르가 교차한다는 뜻	교차로 분기점
콜레보레이션		브랜드, 기업, 독자적인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협업	협업 부가가치 발생

(출처: 하미희.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9.)

션은 물론, 화학, 건축, 예술, 경제, 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문화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하미희, 2009). 이런 용어들은 혼용되고 있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다. 패션스타일에서 융합은 “하이브리드” “퓨전”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스타일간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를 말한다. 이봉덕, 양숙희(2002)는 21세기 전환기 트렌드에서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하던 20세기에 비해 21세기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성적 경계의 붕괴, 부와 과시적 빈곤의 혼용 등을 특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결합양식을 새로운 미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박수현(2005)은 21세기 퓨전스타일의 조형성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퓨전”, 지역과 문화를 중심으로 “공간의 퓨전”, T.P.O.에 따른 복종간 의복착장 방법에 대한 의미의 상실을 “장르의 퓨전, 남성 여성간 경계의 허물어짐을 ”성의 퓨전“, 서로다른 가치관과 생활관의 융합으로 나타난 부조화와 유희적 스타일을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퓨전”으로 분석하였다. 하미희(2009)는 21세기 새롭게 나타난 경향을 시간, 문화, 성, 기술의 네 가지 영역에서의 융합으로 분석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절충되고 융합된 레트로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빈티지스타일, 하위문화와 상위문화의 융합으로 고급과 저급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그런지스타일, 정크스타일과 키치스타일, 성적 특징을 무시하

고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섹슈얼리즘 스타일, 첨단 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지향적 감성이 강조된 하이테크, 사이버, 퓨처리즘 스타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컬렉션에서는 이들 융합적 특성은 점차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이며 아방가르드, 그로테스크, 하이브리드 스타일 등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혼재하며 이런 감성적 융합작용에 의한 패션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 3. 선행연구

패션 아이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세기는 주로 시대적 배경과 패션스타일에 대한 연구로 이은숙(2010)은 패션아이콘의 발생 배경과 유행 아이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현실과 이상, 고체형과 액체형, 획일성과 다양성, 사회적 이탈과 재발견이라는 상징적 항목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전해정, 하지수(2008)는 광고적 패션 아이콘들의 역할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패션 이외의 타제품의 영역에서 트렌드 세터로서 역할 확장을 확인하였다. 김영옥, 홍영화(2008)는 디지털시대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콘텐츠 구성 및 패션산업의 활성화, 대중들의 워너비 현상 확산의 기호화된 대상으로서 패션 아이콘을 정의하였고 갈수록 강조되는 패션 아이콘의 상징성에 대해 현대사회의 영향력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고 하였다. 김소라, 이금희(2011)는 미디어에 의해 확산되는 대중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셀러브리티의 영향력과 패션 아이콘화 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들에 의한 패션 신조어의 탄생과 스타일의 유형화를 강조하고 “소비자주도형” 패션시장 형성이라는 패션 산업에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김미현(2005)은 21세기 융합화 문화 변화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제품의 융합 및 복합화의 경향을 초래하며, 개인과 그들의 생활에서는 개성화와 탈일상화, 합리적 생활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었는데 서로 다른 영역간의 협업은 물론 스타일의 융합을 사례로 들었다. 즉, 복식은 개인이 속한 환경과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융합의 흐름을 타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패션에 대한 태도와 트렌드의 수용도가 변화하며 미래지향적 룩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Gerda Buxbaum(2005)은 패션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패션 아이콘들이 새로운 창의적이고 융합적 스타일을 표현하며 트렌드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들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스타일은 기존 양식의 융합과 이를 구체화시켜 소개한 패션아이콘들의 영향으로 진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III. 연구결과

#### 1. 패션아이콘

패션아이콘이란 용어는 패션스타일과 삶의 방식, 태도 등이 어우러져 투영하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시대의 이상을 표시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의 패션상징, 나아가 문화 상징이 된 인물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패션아이콘은 대중문화의 산물이며, 대중의 개인적 취향은 물론 친밀감, 욕망과 동일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기호이다.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패션아이콘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모방과 재현을 반복하며 그 이름을

판 스타일의 대명사로 자리 잡거나 혹은 특정 아이템 명칭으로 정착하기까지 한다. 에르메스의 버킨 백(Berkin Bag)이나 멀버리의 알렉사 백(Alexa Bag)은 그 좋은 예이다.



<그림 1> 에르메스의 버킨백  
(출처: <http://www.ilbe.com/1568913555>)



<그림 2> 멀버리의 알렉사 백  
(출처: <http://ask.nate.com/qna/view.html?n=8948276>)

21세기 패션아이콘은 “유명인” “명성” “스타” 등의 뜻을 지닌 셀러브리티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들은 영상시대에 걸맞게 대중문화 산업 전반, 정치가, 예술가, 스포츠, 사상가 등 특정분야에서 주목 받는 사람들이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을 동요하며,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어 대중들이 갖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키며 선망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프라브(Prav)’, ‘잇걸(It girl)’, ‘잇백(It bag)’, ‘블링블링(Bling Bling)’, ‘브래쉬 웨어(Brashwear)’, ‘헤로인 슈크(Heroine Chic)’등 패션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다양하고 세분화된 패션그룹을 형성하고, 특징인은 곧 특정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들은 공식석상 뿐만

이 아니라 사적인 생활도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어 끊임없는 모방과 상품화에도 깊이 관여하게 된다. 결국 대중들이 인정하는 셀러브리티들은 패션아이콘화 되어 패션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들의 스타일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옷을 다른 각도에서 부각시키기도 또는 전혀 말도 안되는 옷들을 유행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패션산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아이템을 탄생시켜 대중들에게 강하게 전파하곤 한다.

## 2. 21세기 패션아이콘의 특징과 패션 감성

대중들 간의 소통이 혁신적으로 진보한 21세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 SNS로 신속한 양방향 대화를 가능하게 한 혁명적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문화현상을 속속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급속히 발전한 미디어매체는 문화산업의 중심이 되어 대중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삶의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수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가운데 건축, 디자인, 패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이 융합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그 이미지를 시각화 시키는데 패션은 효과적인 영역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표현하는데도 탁월하다. 20세기에 특정 이미지를 대표하던 패션 아이콘은 이제 다원화된 문화의 감성을 대변하고 있다. 단순한 시각적 특성이 아닌 심리, 철학, 상징성을 내포하고 감동과 유희가 결합되어 융합적인 감성표현이 탄생하게 되었다. 김영옥, 홍명화(2008)는 21세기 디지털 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서 감성성, 상호작용성, 가상성을 들었고, 이 시대 패션 아이콘은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 대중의 우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21세기 패션아이콘의 유형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절대적이고, 즐거움을 제공한다. 결국 그들의 패션은 유행을 창조하고 대중을 선도하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김미현(2005)은 융합화 문화변화에 따른 패션 패러다임 특성 연구에서, 문화의 복합화, 융합화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창의적, 자율적, 독창적인 문화가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패션

에 있어서 융합적 패러다임의 사례 중 ‘스타일의 융합’은 다양화, 가속화의 경향과 서로 다른 양식의 융합, 스포츠웨어와 하이패션의 연관성, 복종의 벽을 넘어선 아이템의 융합, 오래된 것이나 앞으로 다가올 것 등 시대를 초월한 감성의 융합으로 가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등장한 대부분의 패션 아이콘들은 언론과 잡지, 멀티미디어 속의 가상 이미지, 일상생활 등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다양하다. 김영삼(2006)은 대중들에 의해 관심의 초점이 되는 특정인에 의해 구형된 이미지는 문화적 관점에서 ‘다중적 의미를 가진 구조적 이미지’로서 매체를 통해 취급되고 다른 미디어로 피드백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상의 다양한 이미지가 융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제3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새로운 감성이 탄생하며, 대중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이슈화된 패션아이콘 13명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최종 선정된 패션아이콘은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에서 유명인, 옷을 입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옷을 만드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연령대도 2-30대에 제한되지 않고 10대~50대까지 광범위하다. 각종 미디어의 파워로 이들은 공식석상의 모습 뿐 아니라 사적인 모습까지 대중에게 드러나 관심의 집중이 되었고, 다양한 환경에서 트렌드에서 해방되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컨셉을 동시에 가진 융합적 감성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부터 대중들의 인기를 모은 케이트모스는 켈빈클라인 광고에서 보여준 고급스런 미니멀한 이미지와 퇴폐적 섹시 스타일을 자유롭게 착용하고 있고, 스테파노 필라티는 패션 디자이너답게 뛰어난 패션감각으로 고급 클래식스타일과 자유분방한 캐주얼스타일을 믹스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또한 1990년대 말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던 스쿨걸 룩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나이가 들수록 선정적인 란제리 룩을 연출해 두 이미지가 결합되어 반전의 융합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패리스 힐튼은 재벌2세답게 ‘블링블링’이라 불리는 명품 스타일을 보여주고



<그림 3> 브리트니 스피어스  
(출처: <http://blog.daum.net/ssalisu/p1/6975054>  
<http://pann.news.nate.com/info/253985320>)



<그림 4> 패리스 힐튼  
(출처: [http://program.interest.me/onstyle/topmodelkorea1/18/Board/View?rcnt=1&b\\_seq=11](http://program.interest.me/onstyle/topmodelkorea1/18/Board/View?rcnt=1&b_seq=11)  
<http://pann.nate.com/talk/120559260?page=5>)



<그림 5>케이트 모스  
(출처: <http://www.stylebydeni.com/2012/11/icons-kate-moss.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na216&logNo=90177979623>)



<그림 6> 스테파노 필라티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usan2002k&logNo=162293671>)



<그림 7> 안나 윈투어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434080](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434080)  
<http://sure.joins.com/article/article.asp?aid=9224>)



<그림 8> 카린 로이펠트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ju\\_ya&logNo=10174741501](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ju_ya&logNo=1017474150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nuni2102&logNo>)



<그림 9> 올슨자매  
(출처: <http://blog.daum.net/hyun3031/95>  
<http://cafe.daum.net/hollywoodstar/CNy1/16740?docid=HRxxiCNy1/16740/20120324225251&srchid>)



<그림 10> 조니뎀  
(출처: <http://cafe.daum.net/starrplay/5P8d/123?docid=2s3i/5P8d/123/20091106011025&srchid=MbUxT8200#A11401E284AF2F8E9650F2F>)

있으나 수시로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에서 거칠고 활동적인 스포츠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완전 다른 “반전 감성의 융합 이미지”를 보여준다.

안나 윈투어는 항상 클래식한 스타일을 고집하지만 최신트렌드를 다루는 보그지 편집장이라는 이미지가 특유의 단발머리와 함께 페미닌한 트렌드 스타일의 다중적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시각적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또한 같은 패션 에디터 직업을 가진 카린 로이펠트는 파리를 배경으로 타고난 시크한 이미지와 카리스카 넘치는 파워풀한 머스클린 감성의 두 가지 다른 이미지가 융합되어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는 “시각적 감성의 융합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할리우드의 영화배우 올슨자매는 ‘노숙자(homeless)’로 비유되는 패션스타일을 보여주었

으나 세계 10대 갑부라는 이미지가 융합되어 상위와 하위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의 아이템을 섞어가며 연출하였고, 조니뎀은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속 이미지와 오버랩되며 특유의 그런지한 스타일과 히피스타일을 레이어드해서 연출하며 독특한 패션스타일을 보여주는 “문화적 감성의 융합 이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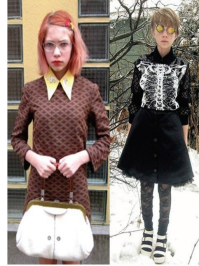
연기자인 클로에 세비니의 빈티지 스타일은 청순한 그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트레이드마크였으나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융합된 리조트룩은 현대적이지 않지만 대중들의 로망인 낭만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환타지한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가수였으나 최근 방송인으로 유명해진 알렉사 청은 젊은 세대임에도 고급스럽고 전통적인 트레이디셔널 스타일을 빈티지로 스타일과 믹스하여 같은 빈티지 이미지이지만 그녀만



<그림 11> 클로에 세비니  
(출처: <http://blog.daum.net/steelgarden/64>)



<그림 12> 알렉사 청  
(출처: <http://cafe.daum.net/bong99/Ryee/18?docid>  
<http://cafe.daum.net/Gianni/Lp1g/11?docid>)



<그림 13> 타비 게빈슨  
(출처: <http://www.cyworld.com/jubongfashion/4842369>  
<http://blog.daum.net/atala86/13750128>)



<그림 14> 디타 본 티즈  
(출처: <http://bbs.movie.daum.net/gaia/do/movie/menu/star/read?articleId=85425&bbsId=P001>)



<그림 15> 레이디 가가  
(출처: <http://cafe.daum.net/ddochi17/1m0b/24535?docid=95w01m0b;24535;20120424143920&srchid=IlMe8CPN500#A1239EF3A4F963C7134CFBA>)



<그림 16> 21세기 패션 아이콘의 융합적 감성 작용

의 특유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낡고 오래된 이미지와 고급스런 상류사회의 이미지를 젊은 감성으로 믹스하여 재해석한 “경제적 감성의 융합이미지”로 볼 수 있다.

최근 이상하거나 기막힌 패션으로 흥미를 주는 패션아이콘이 있다면 키치, 레트로, 빈티지,

아방가르드, 퓨처리즘의 환상적인 혼합과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세계를 공연, 블로그를 통해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타비 게빈슨, 디타 본 티즈, 레이디 가가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감성은 독특한 패션철학으로 미래 패션을 제시하며 시대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한 “시간적 감성의 융



〈표 2〉 21세기 패션 아이콘의 감성 특징

no	패션아이콘	직업 및 배경	패션스타일 경향	융합적 감성작용
1	페리스 힐튼	모델, 방송인	블링블링스타일 스포츠스타일	반전 감성 융합
2	케이트 모스	모델	미니멀섹시스타일 퇴폐적스타일	
3	스테파노 필라티	패션디자이너	클래식스타일 스포츠스타일	
4	브리트니 스피어스	팝 가수	스쿨걸스타일 란제리스타일	
5	조니 뎀	연기자	그런지스타일 히피스타일 레이어드스타일	문화적 감성 융합
6	올슨자매	모델, 패션사업가	그런지스타일 믹스&매치스타일	
7	안나 윈투어	패션 에디터	페미니스타일 클래식스타일	시각적 감성 융합
8	카린 로이펠트	패션 에디터	시크스타일 머스쿨런스타일	
9	클로에 세비니	연기자	빈티지스타일 리조트스타일	경제적 감성 융합
10	알렉사 청	가수, 방송인	빈티지스타일 트래디셔널스타일	
11	디타 본 티즈	벨레스크 예술인	레트로스타일 키치스타일	시간적 감성 융합
12	타비 케빈슨	패션 파워블로거	키치스타일 빈티지스타일 아방가르드스타일	
13	레이디 가가	팝 가수	퓨처리즘스타일 아방가르드스타일	

합이미지”로 볼 수 있겠다.

대표로 선정된 패션아이콘과 배경, 또한 그들의 융합적 감성작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감히 따라하기 힘들지만 늘 즐거움과 호기심을 자아내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이들의 스타일은 일반인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늘 주시하고 경악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으며 21세기형 패션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음에 틀림없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패션 아이콘의 변화와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시대적 아이콘으로서 영

화나 사진을 통해 차별화된 스타일로 유행을 전파하던 20세기 패션 아이콘과 비교하여 21세기 패션 아이콘들이 대중화시킨 패션 스타일은 단순하지 않았다. 융합과 집중, 과장 등 사회전반 문화적 특성과 예술계에 나타난 퓨전, 콜레보레이션, 하이브리드 감성은 시대와 기준을 파괴한 혁신적 스타일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했고, 디자이너들이 끝까지 고수하던 패션의 기본형을 무시하고 패션아이콘에 의해 구체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제안되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이들은 생활 자체가 이슈가 되며 새로운 룩을 만들었고, 기존의 착장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융합적 감성과 코디네이션 기법으로 끊임없이 드러내는 개성적인 감성작용은 대중들을 현혹하고 모방과 재

현을 이끌어내며 하이패션 못지않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신비로움과 퇴폐적, 혹은 화려함과 스포티함 등 스타일의 “반전 감성 융합”, 둘째, 레이어드, 그런지 등 새로운 착장 양식과 히피 등 “문화적 감성 융합”, 셋째, 싸구려 빈티지와 고급 리조트 스타일의 “경제적 감성 융합”, 넷째, 클래식과 페미닌, 매니쉬 등 서로 다른 룩의 재조명 “시각적 감성 융합”, 다섯째, 오래되고 낡은 빈티지스타일과 유치한 키치스타일, 혹은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스타일의 “시간적 감성 융합” 등 다양한 감성이 융합된 전혀 다른 스타일을 연출되고, 이와 같이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패션아이콘들은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 노출되며 강력한 힘으로 대중들의 스타일을 리드한다. 미디어의 힘은 막강하여 점점 더 그 힘이 커지고 이들의 영향력은 대중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스타일에 새로운 감성이 융합되거나 새로운 스타일에 예 스타일이 혁신적으로 융합되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대중은 계속 새로운 스타일에 반응하고 적응하며 더욱 다른 이미지를 요구할 것이다. 21세기 패션 스타일의 감성적 융합은 이런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반영한 21세기형 패션아이콘들이 대중의 인기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뛰어난 감각의 21세기 패션 스타일은 다양한 매체의 힘을 받은 패션 아이콘들에 의해 전 세계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패션아이콘의 선정시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국내 패션아이콘이 배제되었으며, 한류 문화의 확산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패션아이콘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아쉬움으로 남으며, 앞으로 후속연구의 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김미현. (2005). *융합화 문화변화에 따른 패션 패러*

- 다임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운. (2008). *감성세대 여성아이콘의 이미지 스타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라, 이금희. (2011). 셀러브리티와 셀러브리티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19(1), 54-70.  
 김소라. (2007). *셀러브리티의 패션과 패션사회에 미친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양희영. (2008). 미디어 문화에 나타난 청소년 패션의 상징적 의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3), 73-88.  
 김영삼.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대중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패션아이콘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6(7), 58-67.  
 김영옥, 홍명화. (2008). 디지털시대 패션아이콘 (fashion icon)의 사회문화적 의미. *장안 논제* 28, 402-420.  
 박수현. (2005).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수인, 강혜승. (2013).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 유형과 발달. 21세기 기술과 패션디자인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38, 299-308.  
 이봉덕, 양숙희.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1보):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11), 1649-1659.  
 이은숙. (2010). 20세기 상징적 패션 아이콘에 따른 아이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1), 89-101.  
 전해정, 하지수. (2008). 광고에서의 패션 아이콘의 역할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2-234.  
 정소영(2004). *할리우드 스타의 패션아이콘: 19360년대-1950년대 여성 스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원정. (2010). *현대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미희.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erda Buxbaum. (2005).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